



B

LOCALLY

부 산 생 활 문 화 매 거 진
브 · 로 · 컬 · 리

2020 AUTUMN
Vol. 06

SALVA-GU

CONTENTS



04

브로컬리 투어
사하 선셋로드
우리, 같이 걸을까

08



부산한 우리
무지갯빛 사하

12



BUSAN NER
나만의 레시피: Just enjoy!
사진 한 컷, 열정과 행복 한 줌



14

B스켓
젯빛 공단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자유로운 창작자
- 조정현 미술 작가



16

까만붕다리
청춘의 한 쪽은 여기 있습니다만,
- 사하구 하단오일상설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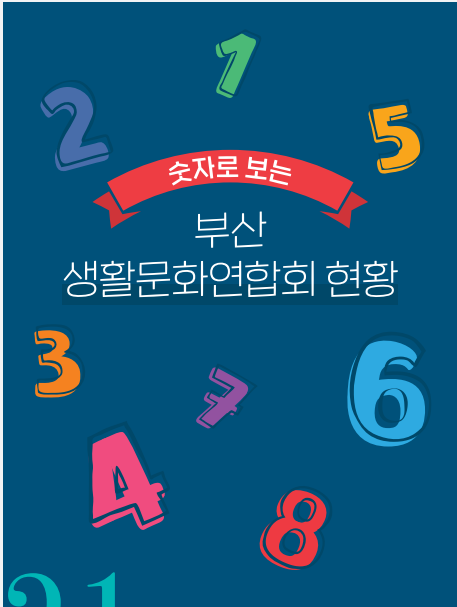


특별한 저녁
종이 한 장으로 펼치는 마법
사하 종이문화교육원
- 이미지 사하종이문화교육원장



20

취확행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작은 울림, 우쿨렐레



21

생활문화 인포그래픽스
숫자로 보는 부산 생활문화연합회 현황

22



보라카이
두 손 맞잡고, 일상 속 문화를 풍요롭게
- 두송생활문화센터

부산생활문화매거진 브로컬리
2020 AUTUMN B·LOCALLY Vol. 06

발행일 2020.10.08. 발행인 강동수 감수 이미연 PM 하경희 기획 오수진 하영문 편집실 한성
1918-부산생활문화센터 TEL. 051-257-8038 통권 6호 ISSN 2671-910X 발행처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13(동광동) 한성 1918-부산생활문화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부산문화재단 후원 부산광역시 디자인·제작 CCA TEL. 051-647-5991 발간인 정형권 인터뷰·
에디터 정해린 디자인 하정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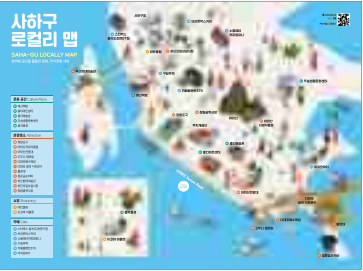
부산생활문화매거진 B·LOCALLY 브로컬리는 부산문화재단 한성1918에서 만듭니다.

COVER STORY

붉은 에너지를 강렬하게 뿜어내는 태양은 하늘은 물론 바다까지도 빨갛게 물들입니다. 일몰 때의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다대포해수욕장의 장관을 두 눈에 가득 담아보세요.

브로컬리 길라잡이

초록 빛깔의 친근한 채소, 브로컬리처럼 로컬의 친숙한 모습을 가득 담은 브로컬리가 가을 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무지갯빛 문화로 물든 사하구를 찾았습니다.
브로컬리 투어에서는 물론대부터 을숙도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 선셋로드 투어를 함께 떠나봅니다. 숨어 있는 문화 공간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부산한 우리**에서는 문화 불모지로 불렸던 사하구를 활력 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네 곳들을 살펴봅니다.
부산을 사랑하는 당신이 바로 부산네! **BUSAN NER**에서는 영국으로 떠난 부산녀와 이란에서 온 부산녀의 톡톡 튀는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바삭한 예술 한 조각, **B스켓**에서는 자유로운 감성과 에너지로 가득찬 조정현 미술 작가가, 재미와 감동이 있는 **특별한 저녁**에서는 종이접기로 삶의 풍요로움을 전하는 이미지 사하종이문화교육원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미로 얻는 확실한 행복, **취확행**에서는 작지만 큰 울림으로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줄 악기, 우쿨렐레를 소개합니다. 이어 **생활문화 인포그래픽스**에서는 부산 생활문화연합회 현황을 숫자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민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문화 사랑방, 두송생활문화센터의 모습을 **보라카이**에 담았습니다.



회색빛 공단을 물들인 문화, 무지갯빛 사하
젯빛 공장 단지의 삭막함이 가득했던 사하구에도 문화의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이를 더욱 빛내주는 공간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낙조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길과 그 길에서 만난 아지트같은 문화 공간까지 사하구 로컬 지도를 통해 만나보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브로컬리

부산생활문화매거진 브로컬리는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호에 발간될 브로컬리의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제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1918.bscf.or.kr)로 접속 후 게시판의 기고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한성1918 인스타그램
브로컬리에서 다음호 소재와 독자의 의견을 받습니다.
SNS 메시지를 통해 제보해주세요!



배포처 신청
브로컬리 신규 배포처를 모집합니다.
제한 없이 독자들에게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다면 상업공간도 OK!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해당 표지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다대포해수욕장'(작성자: 정해진, 2019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누리부산(https://tour.busan.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B·로·컬·러·가·추·천·하·는

사하 선셋로드 우리, 같이 걸을까

가을의 귀뚜라미 소리, 강변의 둥근 자갈을 치는 강물이 빛나는 풍경,
그 위에 내리는 눈부신 낙조, 그리고 색색의 조명으로 밤을 물들이는 부네치아.
눈부신 저녁노을을 따라 선셋로드로 떠나본다.

글 김두리 박근형(독립출판사 쓰담(하트인부산) 수에디터, 에디터)
사진 윤민호, 사하구, 누리부산 제공



부산의 서남단에 위치한 사하구는 동쪽으로는 서구, 서쪽으로는 강서구, 구덕산 서쪽 능선과 승학산 줄기를 경계로 북쪽에는 사상구,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해와 접하고 있어 서부산의 중심에 있다.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특성상 토사유입으로 인해 형성된 평지에서 농경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부산의 도시 산업화와 항만 산업의 발달로 사하구도 급속한 변화를 맞이했다. 1987년 낙동강 하굿둑이 건설되고 1994년엔 지하철 1호선이 연장 개통되면서 부산 외곽 지역과 도심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신평과 장림이 산업 거점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대·소규모의 공장이 들어서고, 그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와 유통 단지들이 입주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마다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빠르게 들어찬 회색 건물들이 즐비한 풍경임에도, 사하는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아름다운 정취를 자아낸다. 긴 여정을 거친 강물이 비로소 몸을 푸는 하구. 그 강물 위로 언제나 찬란한 노을이 내리기 때문이다.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만나는 또 하나의 바다 물운대는 낙조 아래 눈부신 장관을 선사한다.

사하구 명소 중 하나인 '사하 선셋로드'는 물운대에서 을숙도조각공원까지 강변대로를 따라 이어지는 걷기 여행길이다. 이 길은 2014년 9월 11일부터 2015년 3월 23일까지 연재된 부산일보의 기획 보도 “부산 컬러로드를 연다”에서 소개된 부산의 21개의 길 중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곳으로, 태고적 신비의 노을 풍경과 생태, 환경, 예술 공간이 결합되어 있다.

찬란한 윤슬을 따라 걷는 ‘하단 강변 산책로’

스타벅스 을숙도강변DT점에서 출발해서 선셋로드*의 강변 산책로를 걷다 보면 중간에 육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육교를 건너지 않고 직진하면 낙동강 대교를 타고 을숙도로 갈 수 있으며, 육교를 건너면 신평과 다대포로 향하는 강변 산책로로 갈 수 있다. 을숙도에 철새 도래지 쪽으로 생태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므로, 낙조를 만나기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면 좋을 것 같다.

육교를 건너서 오면 하단 가락타운1단지아파트 옆 작은 공원에 들어선다. 작은 공원이지만 정자와 수풀 내음 가득한 산책로가 마련돼 있으므로 잠시 숨을 돌리며 쉬어가도 좋다. 공원을 나와 다리를 건너면 회센터 입구의 나무 데크에서 계절마다 이곳에 들리는 철새를 종종 만날 수 있다. 도심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왜가리나 바다에 가야 볼 수 있는 갈매기도 이곳에선 흔히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존재다.

회센터 옆엔 하단포구가 있다. 옛날엔 초가집 40~50호가 웅기중기 모여 살았던 작은 어촌이었지만, 1932년 구포다리 건설로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하단포구에서 건너편으로 건너면 다시 강변 산책로로 들어설 수 있다. 여기서 다시 만나는 산책로는 부산의 갈매길 중 하나인 ‘노을나루길’이다. 이름에도 노을이 들어가는 이곳의 낙조는 도심의 회색 건물이나, 바다의 수평선 너머 만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날씨와 구름의 상태에 따라 핑크빛이기도, 빛나는 주황빛이기도, 불덩이 같은 붉은 빛이기도 한 강변의 낙조는 계절마다 바뀌는 수풀의 모습에 따라 연출되는 그림이 다양한 말 그대로 ‘낙조 장관의 명소’이다. 낙조가 질게 물든 갈대숲과 하늘을 날아가는 철새 떼의 모습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절경일 것이다. <사진 1> <사진 2>

* 사하구청 홈페이지(www.saha.go.kr) > 문화관광 > 관광명소 > 사하 선셋로드, 별지 지도 참고



사진 1 하단포구 전경



사진 2 해질녘의 노을나루길 모습

낙조 아래 오색 빛의 향연, ‘물운대’와 ‘부네치아 장림포구’

동해와 남해가 동시에 보이는 바다, 다대포. 역사적으로는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임진왜란에서 전사한 정운 장군의 순의비가 있는 곳이다. 가장 먼저 전쟁을 치러야했고,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겪은 장소인데 지금은 어느 바다보다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긴다. 다대포해수욕장에 오면 꼭 걸어볼 해안 산책로가 두 개 있는데, 물운대 주변을 돌아보는 해솔길 산책로와 낙조를 맞이하는 고우니 생태길이다.

물운대 산을 끼고 바다 위를 걷을 수 있는 해솔길 산책로는 물운대 산 입구부터 해변공원을 가로질러 고우니 생태길 입구까지 이어진다. 물운대 입구에서 산책로 전망대에 오르면 바다를 발아래에 두고 걷는데, 낙조가 시작되는 시간에 다대포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명 ‘inner-peace’의 명소라고나 할까. 잔잔한 파도가 쉬지 않고 백사장을 적시는 고요한 바다에서, 마음을 찬찬히 돌아보는 명상에 충분히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사진 3> <사진 4>



사진 3



사진 4



사진 5

2018년 08월 27일에 실렸던 부산일보 소식에 따르면 2012년에 사업비 92억 원이 투입돼 명소화 사업과 안전시설 보강, 테마 거리 조성 등 3대 사업으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알록달록한 컨테이너 건물과 전망대, 예술관 그리고 포구에 동동 떠있는 배들을 보면 마치 이국에 온 기분이 들기도 한다. 나도 모르게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싶은 장소다. 낡은 모습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그리고 아직도 변화를 거치고 있는 장림포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전망대를 찾아가자. 해가 떠 있을 때도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지만, 장림포구의 매력은 색색의 조명으로 물든 야경이 펼쳐지는 저녁 즈음 절정에 달하는데, 다음날 다시 해가 뜰 때까지 밤하늘의 별과 함께 빛난다.

2020년, 우리는 봄과 여름의 일상을 잃었다. 이대로 가을과 겨울의 일상마저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요즘이다. 하지만 우리는 따뜻했던 봄과 뜨거운 여름의 일상이 찾아올 것을 소망하고 기대한다. 다시 거리가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일 때, 우리의 추억도 부네치아 거리처럼 빛날 것이다.



사진 6

해솔길 산책로를 지나 고우니 생태길을 향해 가다보면, 넓은 공원 하나가 있다. 이곳에는 밤이면 오색 빛으로 빛나는 다대포 명물 ‘낙조분수’가 있다. 부산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음악과 조명에 맞춰 물줄기가 분출되는 음악분수다. 보통의 분수가 호수 안, 혹은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다대포 낙조분수는 바닥에서 물을 쏘는 바닥분수로 최대 55m까지 물줄기를 쏠 수 있다. 이에 2010년 기네스월드레코드에 ‘세계 최대 바닥분수’로 등재되기도 했다. 낮에는 체험 분수를 운영하고 밤에는 음악분수를 운영하는데, 체험 분수는 현재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시 운영이 중단되었다. 음악분수는 매년 연례대별로 노래를 바꾸어 공연하기 때문에 노래와 공연을 보는 맛이 있다. 어린이들과 함께 있다면 꼭 한 번은 들러보길 추천한다. <사진 5>

해솔길 산책로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만났다면 해솔길 반대편에 자리 잡은 고우니 생태길은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생태길 아래에는 작은 계들을 만날 수 있는 갯벌이 펼쳐져 있고, 생태길 주변에는 갈대가 춤춘다. 고우니 생태길은 찾아오는 모두가 잠시 쉬었다 가는 쉼터 같다. 가끔은 고니가 쉬었다 가고, 바람과 낙조가 머물러 있다. 산책하는 사람에게는 앉을 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갈대와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전망대가 위용을 뽐내며 서 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이 길을 걸으면 복잡하던 머릿속도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갯벌과 새, 낙조와 함께 걸어보는 산책로다. <사진 6>

낙조가 밤하늘에 자리를 내줄 무렵, 다시 걸음을 옮긴다. 수면에 떠 있는 배와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야경이 눈을 사로잡는 곳, 장림포구다. 포구의 모습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무라노섬과 닮았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부산 + 베네치아’ 해서 ‘부네치아’라는 애칭이 붙었다. 장림포구는 조선 시대에 바다를 따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다가 정박하는 단순한 포구였는데, 장림이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악취가 심해졌고 이후 포구의 역할도 잃었다. <사진 7>



사진 7

- 사진 3 물운대 전망대에서 바라본 낙조
- 사진 4 해솔길 산책로
- 사진 5 화려한 색이 돋보이는 낙조분수(코로나19 이전 모습)
- 사진 6 고우니 생태길
- 사진 7 해질녘의 장림포구 풍경



무지갯빛 사하

글 장현수(여산책방 대표)
사진 윤민호, 홍티아트센터 제공

현 시대는 서울과 그 인근 지역을 하나로 묶어 놓고, 그 테두리 밖을 모두 지방이라 일컫는다. 이 테두리 안팎의 문화적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미 커진 지 오래다. 전국은 하나의 도시와 다름없이 연결돼 있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개인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다른 것도 현실이다. 문화의 불모지라는 부산에서도 서쪽인 사하구, 사상구, 북구 등의 사정은 더욱 그러하다. 이곳은 왜 사막과 다름없이 척박한 문화 환경을 갖게 되었을까? 700리 물길을 달려 온 강줄기가 바다로 이르기 전, 막바지로 숨을 돌리는 풍요로운 터인데 말이다. 사하(沙下)는 낙동강이 싹고 내려 온 모래가 오랜 세월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곳이다. 30만 명이 넘게 사는 큰 마을임에도 문화라는 말이 낯설었던 이곳... 근처에 부산현대미술관과 을숙도문화회관 등이 있어 그나마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막상 '도심' 가까이에서 생활문화를 즐길만한 장소는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생명력을 뿜어 내는 곳들이 있다. 강변을 따라 걷는 길 가운데 보석처럼 숨어 있는 문화 공간들을 만나보자.

RAINBOW

01 브라운박스커피
그림과 커피의 향기로운 조합

당리역에서 내려 3번 출구로 나가 승학산 쪽으로 50미터쯤 걸어 올라가면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가 있는 당산거리가 나온다. 당산거리에서 왼편으로 내려가면 낙동초등학교가 있다. 1980년대 초에는 전교생이 5천 명이나 되던 곳이라 학교 앞은 문방구가 거리를 형성할 정도였다. 지금은 각기 다른 가게들로 바뀌었지만 유독 깔끔한 건물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겉에서 보면 분위기가 좋은 일반 카페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개별 조명을 받으며 전시돼 있어 갤러리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2019년 9월에 문을 연 이곳은 브라운박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다. 이곳의 박형근 매니저는 중앙대 미술학과(서양화 전공)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 부산에 터를 잡았다. 전공을 살려 작가 섭외부터 작품 전시, 일정 조정, 작품 판매까지 전시에 관한 모든 일을 총괄한다.

전시 작가를 선정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나 제한은 없다. 다만 가능하면 지역 작가와 청년 작가를 먼저 염두에 둔다. 그래서 평소 대학교 졸업 전시회를 찾기도 하고, 부산에 있는 갤러리들을 자주 돌아본다. 보통 2주 단위로 전시 작품을 교체하고(예외적으로 한 달간 전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먼 곳에서 작품을 가지고 방문하는 작가에 대한 배려일까.) 연중무휴로 전시를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20회 넘는 전시회를 열었다. 작가들을 위해 대관료도 저렴하게 책정하려 하고 있다.

02 여산책방
사람 냄새 가득한 우리 동네 아지트

여산책방은 지하철 1호선 신평역의 9번 출구로 나오면 보인다. 건물목 하나만 건너면 닿을 수 있는 곳이건만 찾긴 쉽지 않다. 책방임을 알려주는 간판이 없기 때문이다. 통유리 안으로 보이는 몇 개의 책장과 한 가운데 놓인 책상을 보면 '여긴 뭐 하는 곳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노란색의 벽면이 산뜻한 책방 한쪽의 서가에는 스페인어 관련 도서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고, 다른 곳엔 여행 관련 서적들도 보인다. 또 다른 서가에는 문학 작품들이 순서 없이 모여 있다. 책방 주인의 호를 따서 여산(如山)책방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공간은 그러고 보면 산을 닮았다. 책이 가득 찬 느낌이 아니라, 책들이 책 나무에 걸려 있는 듯 많이 비어 있다. 남은 공간은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지길 바라는 주인의 마음이 담긴 것일지도 모른다.

동네 책방의 역할은 단지 책을 사고파는 데서 그치지 않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교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산책방에서는 스튜디오와 독서 모임 등이 열린다. 작년 5월에 문을 연 이래로 '스페인의 밤'이라든가 '산티아고 길 걷기 설명회'를 주최하고, '스페인어 기초 스튜디오' 등의 활동을 하며 다양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올해는 행사들을 미루고 있지만, '느리게 읽는 독서 모임',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글쓰기' 등의 독서 커뮤니티 활동도 준비 중이다. 밝은 분위기의 공간 안에서 각자 자유롭게 쓴 글들을 같이 읽고 나누며, 평소에 느끼지 않았던 재미를 찾아 시대의 우울을 떨쳐보면 어떨까?

SAHA

03 음악풍경
음악의 선율에 빠져드는 감미로운 풍경

지하철 괴정역에서 내려 괴정시장을 지나 산 쪽으로 좀 더 오르다 보면 음악풍경을 만날 수 있다. 아파트 상가 건물 안에 자리한 이곳에서는 음악 공연과 연습이 진행된다. 2013년 창립 이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 온 김창욱 기획위원장은 문화 생산자가 수용자의 요구에 맞는 음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자 이곳을 열게 됐다. 특히 작년 1월 시작한 '짜장콘서트(이하 짜콘)'는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입소문이 나면서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한 번 온 사람이 스태프를 자처하며 사진 촬영이나 공연 동영상 편집까지 척척 해내며 손을 맞출 정도다.

'짜콘'이라는 이름은 짜장면을 먹고 연주를 즐기는 공연 형식에서 비롯됐다. 공연은 성악 솔리스트와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등 소규모 관현악 연주로 구성된다. 또한 관현악뿐 아니라 성악, 국악, 지휘를 망라한 140여 명의 전문 예술가들이 '프로무지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음악풍경의 무대에 서고 있다. 지역사업으로 시작했던 '짜콘'은 그동안 쌓인 인기에 힘입어 작년 12월부터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과 협업으로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참석하고 싶은 시민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석당박물관을 찾으면 된다. 단 인원제한이 있고 상황에 따라 비대면 공연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기존 연주 공간인 음악풍경은 현재는 공연 준비를 위한 연습 장소로 쓰이고 있다.

04 홍티아트센터
지역민과 작가들의 자유로운 놀이터

홍티아트센터가 개관한 것은 2013년이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입주 작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 공간인 레지던시 운영, 전시 공간 마련, 대관, 지역민 예술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됐다. 설치미술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현재 시각 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홍티라는 말이 자칫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무지개 언덕이라는 예쁜 뜻을 지녔다. 한자로 써보면 홍치(虹峙)가 되는데, 이것이 발음하다 보니 홍티가 된 것이다. 인근의 공단 이름도 무지개 공단이다.

건물 1층에는 큰 전시 공간이 하나 마련돼 있고, 작은 작업실들이 작가의 개성에 따라 꾸며져 있다. 한가운데는 공동 작업실이 있다. 2층은 작가들이 거주하는 공간인데 이곳을 작가연구실이라고 부른다. 입주 작가들의 릴레이 전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 중이며, 해외 작가와의 교류전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위치적 특성으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알음알음 찾아오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한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닌) 평소에는 예술가와 시민이 소통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공간투어를 진행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은 입주 작가들의 창작공간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를 개최한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사전 문의를 통해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평역에서 마을버스 3-1번을 타면 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무지갯빛
사하

나만의 레시피: Just enjoy!

글·사진 차정화
영국으로 떠난 부산너



“Kolli! I want you to stay here! I will pay for you!”
2년 전, 내가 영국 캠브릿지에서 처음으로 K-pop댄스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받았던 고백이다. 짜릿했다. 14살, 전포동 집 앞 문화센터에서 처음 춤을 배우던 코흘리개가 지금은 바다 건너 캠브릿지까지 와서 말도 안 통하는 이 아이들과 춤을 추고 고백까지 받다니! 그 때 당시엔 예정된 여정이 있어 그의 고백을 받아주진 못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다시 영국으로 춤을 추러 오게 되었다.

난 흔히들 표현하는 ‘타고난 춤꾼’은 아니다. 춤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춤추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춤을 추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정확하게는 ‘춤을 추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연을 만들어 가는 게’ 좋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주었고, 다음 만남을 설레게 만들었다. 고3때 모두가 진로를 두고 고민을 할 때, 나는 고민이 없었다. 춤으로 대학을 갈 실력도 없었을 뿐더러, 내가 대학에 가서 어떤 전공을 하든 춤은 나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조미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쩌다 보니 외국어 전공을 선택하게 됐고, 딱히 준비할 것 없는 대학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너무 준비가 없었던 탓일까. 교수님께서 “3.5점만 맞춰보자”고 하실 정도로 대학생활은 나에게 관심 밖이었고, 나는 더 부지런히 학교 밖으로 나가 춤을 추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나의 20대는 치열했다. 대학생으로 이뤄진 댄스팀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모두가 24시간 단위의 스케줄을 짤 때 나는 72시간 단위로 스케줄을 짰고, 할 일을 마치면 다음 일정 전까지의 공백이 잠자는 시간이었다. 하루 전 날에 공연이 잡혀도 밤새 연습해서 무대를 준비하는 건 기본이었고, 안무 및 의상 작업에 팀원들을 연습시키는 것까지 모두 나의 몫이었다. 20대였기에 가능했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넓어졌지만 정작 그 길 위에 있는 나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상처투성이였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한 당연한 결과였다.

만남의 폭이 커지는 만큼 나를 지킬 줄도 알아야 함을 뼈저리게 배우며 ‘더 이상 춤추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지인에게 스페인에서 K-pop댄스 수업을 해 보면 어떻겠냐는 러브콜이 왔다. 그 언니는 스페인에서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했고, 상황에 따라 춤 수업은 못 할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여행도 하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였다. 그렇게 나는 스페인으로 가게 되었다. 마땅히 설레어야 할 내 인생의 첫 비행이었지만, 나는 새로운 길에 대한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정도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스페인을 시작으로 지인의 지인을 통해 독일, 영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까지 그 길은 이어졌고, 춤을 추며 만난 나의 새 친구들은 고맙게도 사람에게 닫힌 나의 마음을 노크해주고 있었다.

올해 다시 영국으로 오게 됐을 때엔 기대가 좀 컸다. 하지만 예정에 없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나 또한 그 몸살을 피해갈 순 없었다. 3월 말 처음으로 영국 전체가 락다운이 됐을 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도 지루했고, 가까운 곳으로도 여행을 갈 수 없는 것과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기회조차 없는 것에 힘이 많이 빠지기도 했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례메이트 친구들도 직장과 학교에 못 가니 매일 자기 방 안에서 할 일만 하며 지냈고, 어쩌다 부엌에서 마주칠 때엔 어색하게 웃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황금지 자리를 뒀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아침마다 나누는 “굿모닝” 인사가 자연스러워졌고, 식사 때에는 서로 밥을 먹었는지 묻고 같이 먹기도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서로에게 적응해가기 시작했다. 케이크를 만들어 먹거나 자전거를 타고 함께 집 근처 공원에 블루베리를 따러 가는 것도 일상 중 하나였다.

한 번씩 야식으로 친구들과 한국 라면을 끓여먹을 때가 있다. 영국인 친구들은 한국 라면은 맵지만 내가 끓여주는 라면은 맵지 않아서 맛있더라 잘 먹는다. 나도 내 친구가 끓인 완두콩이 가득 들어간 라면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스타일이라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국물에 가득한 완두콩을 떠먹다 보면 ‘아, 내가 영국에 있긴 하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라면 하나에도 각자의 레시피가 다르듯, 인생에도 다양한 레시피와 맛이 있는 것 같다. 나의 인생 레시피는 “Just enjoy”이다. 나는 오늘도 나만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모두가 다 힘든 때이지만 더 이상 아픈 소식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이 기간을 함께 웃으며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약 10년 전에 이란에서 한국으로 왔고 바로 부산으로 건너와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터전을 옮길 때는 친구들을 비롯해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해지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제 모습이 그랬어요. 누군가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면 아마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을 거예요. 특히 한국은 언어와 문자, 음식 등 모든 것들이 이란과 많이 달라 적응하는 것이 더욱 힘들었어요.

‘외로움에서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술이다’라는 문구를 어디에선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 온 뒤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사진을 찍는 일이었어요. 무작정 카메라를 구입해 주변의 사물과 풍경들을 찍기 시작했는데, 사진에 대한 지식과 카메라를 다뤄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서툴렀어요.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싶어 강의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수강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라도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고 싶어 미술관과 갤러리를 찾아다니며 촬영을 했고 마침내 도움이 될 것 같았던 사진 동아리에 가입도 했어요. 하지만 의사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게 홀로 열심히 사진을 찍다가 ‘부산 관광사진 공모전’에 참가하게 됐고 제 사진이 수상작 중 하나로 선정됐어요. 이 일을 계기로 사진 찍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더욱 마음을 쏟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는 월간지 <다이나믹 부산>에서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지만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결국 수락했어요. 이 작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혼자서는 가기 어려운 장소나 평소에는 갈 수 없는 행사에 가게 되는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또한 사진작가로서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시작점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무작정 촬영하던 방식을 바꿔 무엇을 찍을 것인지 먼저 구상한 다음 촬영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찍은 첫 번째 프로젝트 사진은 ‘매축지 마을’로, 완성하는 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두 번째는 ‘회명동 생태공원’, 세 번째는 부산 영도의 ‘깡깡이 마을’이에요. 올해부터 시작한 네 번째 프로젝트는 금정산과 황령산, 장산 등 부산의 여러 산들을 담고 있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배경으로 꾸준히 사진을 찍어 왔으며, 그 결과물들로 전시회를 수차례 열기도 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국제적인 사진대회에는 참가한 적이 없다는 점인데요. 더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시간을 투자할 계획이에요.

홀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지만 함께할 때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특히 부산에서 주최하는 부산국제환경예술제(BIEAF)에서의 큐레이터 활동은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줬어요. 또한 현재 속해 있는 사진 동아리인 ‘부산 라이트스토키템’에서의 풍부한 교류도 큰 도움이 됐요.

제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영화 산업, 특히 애니메이션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도 사진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을 함께 얻게 돼요. 본업에 해당하는 업무와 취미활동인 사진 촬영까지, 두 가지를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쓰면서 매우 바쁘게 살고 있지만 이로 인해 무척 행복해졌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예술 활동은 사람을 건강하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바꿔 주는 힘이 있으니까요! 다른 이들도 이러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해요.

사진 한 컷, 열정과 행복 한 줌

글·사진 Michael Kazemi
이란에서 온 부산너



저의 SNS 계정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michael kazemi](https://www.facebook.com/michaelkazemi)

www.instagram.com/michael_kazemi

젓빛 공단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자유로운 창작자

조정현 미술 작가

홍티예술촌은 사하구 공장 단지의 젓빛 풍경 속에서도
생기를 뿜어내는 독특한 창작 공간이다.

이곳에 입주한 청년작가들은 젊은 에너지를 발산하며
그들의 작품 세계를 마음껏 펼쳐나가고 있다.

이 중 조정현 작가는 환경과 동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조해낸다.

길가에 버려진 고철 덩어리에서도 영감을 얻는
그의 작업실을 들여다봤다.

인터뷰·글 정해린 사진 윤민호, 조정현 제공



■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면 및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미술 작가 조정현입니다. 동아 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현재는 홍티예술촌 입주 작가로 있어요. 최근 몇 년간은 회화보다는 조각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학 졸업 후 여러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조각을 하시는 작가님들과 교류하다 보니 작업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요.

■ 박제 동물을 활용한 작품들이 눈에 띄네요.

가장 처음 만든 박제 동물 활용 작품은 금빛으로 도색한 우레탄폼 위에 박제된 청설모가 올라가 있는 'blind zone'이에요. 인공물인 우레탄폼 덩어리 위에 자연에 속하는 동물을 올려놓은 이유는 작품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도 있지만 역설적인 의도도 들어 있어요. 작품을 만들 때 우레탄폼과 락카 스프레이를 사용하며 환경에 정말 좋지 않겠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크게 봤을 때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속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현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환경 문제들이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현 시대는 이러한 화학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단계에 처해있다고 생각해요.



blind zone, 우레탄폼에 도색, 박제된 청설모, 70x85x65(cm), 2019

■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꼽는다면?

제 작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박제 동물이 사용되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의 작품들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를 뽑는다면, 올해 제작한 'Chicken-graphy'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닭 뼈를 가공해 다람쥐가 딛고 서 있는 지형을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뼈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 엄청 애를 먹었는데 다행히 결과물이 너무 만족스럽게 나와 기뻐했던 생각이 나네요. 나중에서야 닭 뼈만 따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약간 허탈하기도 했어요.



Chicken-graphy, 25x20x25(cm), 박제된 다람쥐, 닭뼈, 2020



■ 박제 동물을 활용한 작품이나 동물이 들어간 그림 등 동물을 소재로 삼는 이유가 있는지.

회화 작업을 주로 하던 대학생 시절에 동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 많이 봤었고 문명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이들의 고통은 지속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의 초기작들을 보면 동물들은 크게 나오는 반면 의자 같은 사물들은 작게 그린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도도 고통 받는 동물을 나타낸 것이죠. 그 때부터 동물을 주제로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박제 동물은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작업에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재예요.

■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제 작품은 메시지를 강요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아요. 다만 인간으로 인해 자연과 동물들이 피해 받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사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같은 것들을 인지하고 다가올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 작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산과 사하구의 장·단점을 꼽는다면?

저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부산에서 살아왔는데요. 부산은 작업실과 재료를 구하기 편리해 작업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지만 지역작가들 간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부산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작가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하구의 경우에는 공간이 많은 탓에 홍티예술촌이나 홍티아트센터 근처에도 특이한 형태의 재료나 물건들이 많이 널려 있어 작업하기에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홍티아트센터의 한 작가 분은 다대포해수욕장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기도 하셨어요. 또 넓은 작업실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예요.

■ 일반인들이 미술 작품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작가들의 숙제이기도 해요. 작가들은 항상 자기표현과 관객들과의 사이에서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미술은 각자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감상하는 폭이 다양해진다고 생각해요. 경험과 지식이 비교적 풍부한 사람들은 미술을 보다 폭 넓게 감상할 것이고, 다소 부족하다면 작품의 시각적인 부분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쩌면 미술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저의 작품을 예로 들면, 어느 날 누나와 조카가 작품을 보러 와서 박제동물을 보고는 누나는 무섭다고 했지만 조카는 아주 좋아했어요. 이처럼 둘의 경험이 다르니 인식도 달라지는 것이라 생각해요.

■ 앞으로 해보고 싶은 작업과 추후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생태학과와 협업을 해보고 싶어요. 동물과 환경을 소재로 삼아왔지만 생태학적 지식이 없어 작업을 할 때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고 싶어요. 또한 저는 작업을 할 때 재미를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동시대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다니며 여러 작업들을 진행할 것 같아요.

청춘의 한 쪽은 여기 있습니다만,

사하구 하단오일상설시장

글 김지훈 사진 윤민호



2006년,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서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하단동의 동아대학교 근처에서 살게 되었고 그 변방엔 자그마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동아대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바로 이 근방을 하단시장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죠. 그렇지만 이곳보다 오래되고 비교적 규모도 제법 큰 시장은 따로 있습니다. 하단을 제 나름의 기준으로 크게 구분하자면 철새 도래지가 있는 울속도와 승학산 아래 위치한 동아대학교를 필두로 한 대학로, 하단지하철 주변 상권이 있습니다. 끝으로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하단오일상설시장이 있습니다.

하단오일상설시장은 같은 전통시장 중 그래도 비교적 가깝게 위치한 구포시장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소박합니다. 그럼에도 하단오일상설시장은 마치 방파제 마냥 하단과 다른 동을 구분하는 하나의 구역이자 사하구의 대표 전통시장입니다.

대학생 시절 주로 애용하던 시장은 이 하단오일상설시장보단, 주로 대학 근처의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개강총회 때 고사용으로 돼지머리와 막걸리를 사던 기억이 납니다. 요리의 '요'자도 모르던 시절 시장에서 산 양념 꼬막과 겉절이를 먹으며,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도 채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은 하단시장하면 대학 근방의 작은 시장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추억도 더욱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하단오일상설시장은 제겐 특별한 추억이 얹혀 있는 곳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중심은 살기가 편합니다. 그 탓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죠. 또 그 탓에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취생들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민감합니다. 같은 값이면 대학 근처보다 조금 먼 방이 조금이라도 더 넓고 쾌적했습니다. 제 일 년 후배의 경우도 제대 후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생활하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하자면, 변방의 변방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단오일상설시장 언저리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대를 하고 함께 연극 공부를 하던 친구였기에 우리는 그 시절, 둘이서 술을 자주 마시곤 했습니다.



대학가 앞도 다른 곳과 비교를 하자면 정말 감소한 가격이었지만 워낙에 가벼웠던 주머니 사정으로 하단오일상설시장의 한 곳을 아지트 삼아 술자리를 나누었습니다. 간편 대신 칼국수라고 적혀 있는 것이 그 가게의 이름이라면 이름이었습니 다. 천장은 또 얼마나 낮았는지 안으로 들어가선 허리를 꺾 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뜨끈한 칼국수를 후후 불면 칼국수가 식기 전에 가게 지붕이 날아갈지도 모를 정도로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도 가게의 외형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작은 키의 할머니는 정겨운 표정으로 어느 시간이든 늘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곤 했죠. 때때로 단골 어르신들이 가자미 찜이나 해물파전 같은, 당시 우리에겐 값비싼 안주를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그 횡수가 꽤 잦았는데 때때론 그런 걸 기대하면서 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술을 조금 무리하게 걸친 날에는 당연하다는 듯 후배의 집에서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멀다 해도 한 동네고 몇 보만 걸으면 되는 것을 말이지. 그럼 또 어제 그렇게나 먹어 놓고도 다시 허기가 저 후배와 함께 하단오일상설시장을 배회하곤 했습니다. 오일장의 정확한 날짜를 알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는 장날이면 족발을 한 팩 사선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거나 돼지국밥 한 그릇으로 청춘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때의 하단오일상설시장과 지금의 하단오일상설시장은 다행스럽게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특유의 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선가게 사장님에게 파리는 여전히 신경 쓰이는 존재이고, 어묵과 찐 옥수수 and 찐빵들은 제각각 김을 뿜어내고 있죠. 특히 예나 지금이나 같은 장소에서 사탕을 팔고 있는 사장님의 파란 트럭 바퀴는 굴러가긴 하는지...

하단오일상설시장은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최초의 시장이고, 그 예전 분명 행복했지만 조금은 공상맞기도 하고 애처로운 청춘의 한 쪽을 다독여주던 시장이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먹은 칼국수 한 줄기는 그 시절 젓 줄기였습니다. 졸업 후 후배와 하단에서 만나 칼국수 집으로 호기롭게 향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신세를 많이 졌으니, 이번엔 제일 비싼 것을 시키자고 했던 그 말들이 말이지요. 애석하게도 가게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엔 나의 청춘 한 쪽이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학교 계단을 내려오던 길, 후배 녀석이 자신 있게 데려갔던 하단오일상설시장의 어느 노포는 지금도 어디선가 포근하게 생을 반죽하고 있기를 기대하며, 꿈같던 과거가 아주 기다랗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김지훈 극작가

제37회 부산연극제에서 '귀가'로 우수작품상·희곡상을 수상했으며, 극 연구집단 '시나위'의 극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종이 한 장으로 펼치는 마법

사하
종이문화교육원

이미자 사하종이문화교육원장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상가 2층에 자리 잡은 소박한 공간, 이곳에서는 종이의 마법이 펼쳐진다.

한쪽 벽면에는 수백 장의 딱지로 만든 커다란 태극기가 존재감을 뽐내고 있으며

반대편 벽의 수납장에는 알록달록한 종이접기 소품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좁아 보이는 장소이지만 문득 따스한 온기가 느껴진다. 공간은 사람을 닮는다.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자 사하종이문화교육원장은 종이접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온기와 정을 나누어준다. 작은 손끝으로 만들어내는 커다란 풍요로움,
종이접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인터뷰·글 정해린 사진 윤민호, 이미지 제공



2019년 6월 이바라기 학교 방문 모습



페이퍼웍스 회원들과 김영만 선생님

✈ 취미로 시작한 종이접기가 직업이 되기까지

두 아이를 낳고 무료함을 달래고자 취미 생활로 시작했던 종이접기는 자연스레 직업이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이미자 원장과 종이접기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1996년부터다. 아이와 함께 숙제와 놀이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종이접기 기법들을 익혔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됐다.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정신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후에는 홈 스쿨 수업도 열게 됐다.

이후에는 종이문화재단 회원으로 속해 강사 활동을 하다가 2008년, 집 근처에 사하종이문화교육원을 열고 구청의 평생학습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도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교육원은 강사 양성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로서의 역량을 갖춰 기관 등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다. 일반 회원들의 취미반 수업도 함께 진행되는데 두 수업 모두 종이접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토털 공예를 전반적으로 다룬다.

강사를 교육하다 보니 자신도 전문적인 역량을 더욱 갖추기 위해 평생교육 및 사회복지 학위도 취득했다. 처음 입문 시절에는 집에서 한창 종이접기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 편찬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이 은퇴한 지금 자신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 재밌다.

✈ 종이접기의 다채로운 매력

종이접기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책과 동영상에 다양한 지금과 달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자격증 과정에서 제공되는 교재를 토대로 공부를 했다. 꽃 접기와 종이 꽃꽂이 등 단순한 차원에서 점차 종이 공예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종이접기를 기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재료와 부자재, 기법들을 접목해 생활 소품부터 정교한 작품까지 만들어 낼 수 있어 토털 공예로 뻗어나간다.

“주민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나면 실생활에서 쓰기 좋은 것들은 나눠주고 오기도 합니다.

한 주민센터의 담당자는 오래전 선물했던 다용도 연필꽂이가 단단하고 좋더라

4년이 넘도록 쓰고 있어서 새것으로 바꿔주기도 했어요.

종이 공예로 만든 봉투와 북주머니는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요.”

종이접기는 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입문자들도 부담 없이 다가가기 좋은 취미다. 종이 몇 장으로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 원장이 주민센터로 강의를 나가면 주로 4~50대 장년층이 수업을 들으러 온다. 어르신들과 함께 종이접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체험 수업을 하면 태어나서 색칠은 처음 해본다고 하며 좋아하신다.

“종이접기는 특히 소근육 운동을 자주 해야 하는 어린이나 노년층의 두뇌활동 촉진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힘량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기 때문이죠.”

✈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는 ‘페이퍼웍스’, ‘종이비행기’

이 원장은 사하종이문화교육원처럼 종이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전국 교육원장 20명으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페이퍼웍스’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페이퍼웍스는 매년 1회 이상 해외의 교포들에게 재능기부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종이접기를 알아가고 있다. 종이접기 아저씨로 유명한 김영만 선생님도 이 활동에 함께 한다. 이러한 해외에서의 만남은 더욱 큰 교감을 나누게 만들어준다.

“인도네시아, 독일 등 여러 나라의 교포들을 만나봤지만 매년 방문하는 일본의 학교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중 북한계 학생들이 다니는 이바라기 조선학교를 방문 했을 때 그곳 학부모님들과의 끈끈한 정과 동포애에 잊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경계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헤어질 때는 아쉬움에 서로 부둥켜안고 훗날을 기약하며 눈시울을 적셨어요.”

그리고 이 원장이 만든 또 다른 봉사 동아리인 ‘종이비행기’도 있다. 사하종이문화교육원 회원을 비롯해 13명 정도의 인원들로 구성된 종이비행기는 2010년도부터 두 차례 부산시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공모전에 당선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복지센터와 경로당, 장애인 학습센터 등 부산 내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최근에는 대안학교인 지리산고등학교에 수업을 다녀왔다.

재능을 기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작게라도 누군가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으며, 그 나눔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맛있고 납작한 종이기가 비로소 입체적인 모양을 찾아가듯 말이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종이접기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집콕 종이접기 플랫폼 추천

유튜브 채널 ‘네모아저씨’ (네이버TV도 운영)

3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종이접기 전문 유튜브. 아이들에게 팽이와 동물 같은 장난감은 물론 생활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종이접기 방법들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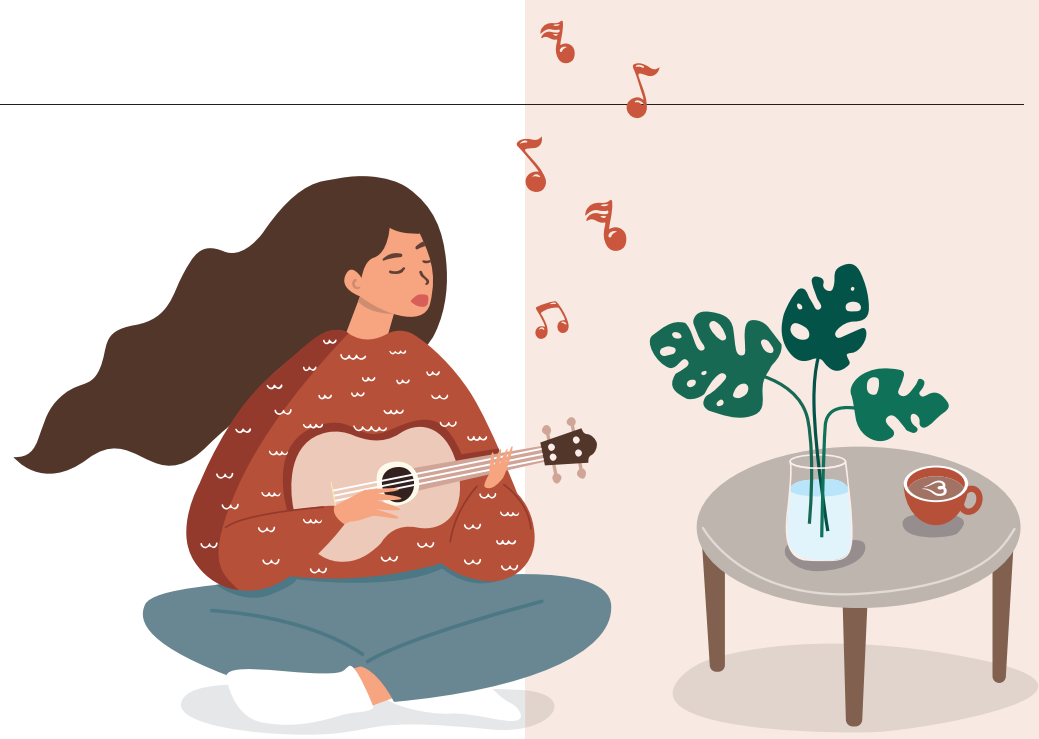
2020 길 위의 인문학 지원 사업 ‘종이나라박물관’

문체부 주최의 프로그램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다.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습을 종이 장난감으로 만들어 보는 ‘마음의 모양’ 수업이 진행된다.

유튜브 채널 매일경제 - 김영만 선생님의 ‘접어서 만들죠’ 종이접기의 길을 30년째 걸어온 김영만 선생님의 직강을 들을 수 있다. 그의 첫 유튜브 도전이었던 본 채널에서는 코딱지 친구들을 위한 쉬운 종이접기가 소개된다.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작은 울림. 우쿨렐레

글 김미선



사랑이는 바람에 감성이 무르익어 가는 이 가을, 우쿨렐레를 배우기 가장 좋은 때다. 우쿨렐레는 알면 알수록 색다른 매력을 지닌 악기다. 우선 이름부터 남다른데, 우쿨렐레(ukulele)는 우쿠(uku, 작은 벼룩)와 렐레(lele, 튀어 오르다)가 합쳐진 하와이어다. 말 그대로 폴이하면 '벼룩이 튀어 오르다'라는 독특한 뜻으로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사람의 손놀림이 얼마나 경쾌하고 즐거워 보였는지 짐작하게 하는 이름이다.

기타를 축소해놓은 듯 귀여운 외형을 지닌 우쿨렐레의 역사는 100년이 훌쩍 넘었다. 우쿨렐레는 1897년 포르투갈 마데이라 섬을 떠나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떠난 4백여 명의 이민자 중 한 사람인 마누엘 누네스가 처음 고안했다. 그는 '브라기냐'라는 포르투갈의 전통악기를 개량해 기존의 5현을 4현으로 바꾸고, 금속 줄도 양의 창자로 교체했다. 몸통은 하와이 토착종인 코아나무로 만들었다. 그의 공방에서 우쿨렐레 제작 기술을 배운 카마카라는 사람이 1916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내건 우쿨렐레 브랜드를 선보였는데, 이는 지금도 하와이의 3대 우쿨렐레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히며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우쿨렐레는 초보자도 하루 만에 여러 곡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연주하기 쉬운 악기다. 우쿨렐레를 잡을 때는 오른팔로 몸통을 감싸고, 왼손으로는 엄지가 뒤로 가도록 넥을 받쳐 코드를 잡는다. 이때 울림통을 가슴에 밀착하고 오른팔 팔꿈치 안쪽으로 가볍게 감싸 안아야 안정적인 자세가 나온다.

전용 넥 스트랩을 이용하면 보다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서서도 연주가 가능하다.

잡는 법이 익숙해지면 본격적인 연주에 앞서 정확한 조율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별도의 튜닝장비 없이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조율을 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우쿨렐레에서 가장 기본적인 C코드는 왼손 악지로 세 번째 프렛*의 가장 아래줄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 엄지로 네 줄을 쓸어주지만 하면 된다. 이 코드만 익혀도 곧 세 마리 정도는 연주할 수 있다. 손목을 털어주듯 가볍게 돌리는 스냅을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오른손 엄지를 위에서 아래로 치는 다운 스트로크와 검지 끝으로 쓸어 올리거나 내려가 자연스러운 소리가 난다.

어쿠스틱 감성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우쿨렐레는 작고 가벼운 악기이지만 큰 울림을 선사한다. 특유의 경쾌하고 아기자기한 음색 때문에 연주하는 내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짓게 될 것이다. 우쿨렐레 반주에 노래 한 소절만 얹으면 화려한 기교 없이도 영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반복되는 일상 속 돌파구가 필요한 요즘, 작은 악기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보자.

*음정을 나누는 핵심 부분으로, 프렛 간 반음씩 차이 난다

혼자서 어렵다면 함께 해요!

부산시 기악 생활문화연합회 소속 우쿨렐레 동아리



가입문의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051-257-8035



사하구 | 홍익우쿨
부산진구 | 해피알로하 우쿨렐레
해운대구 | 우쿨렐레four one
동구 | 숲속우쿨
영도구 | 우사모, 우가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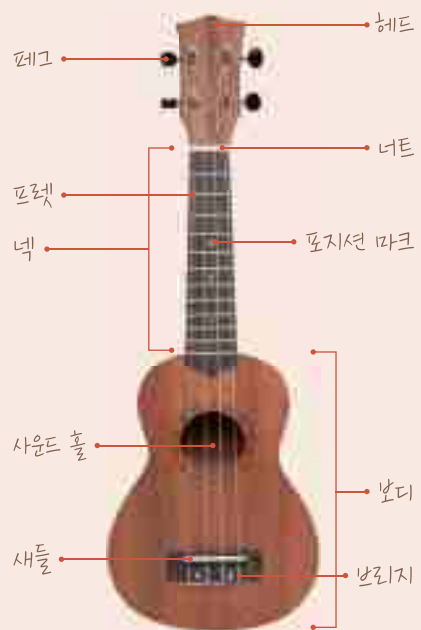
좋은 우쿨렐레 고르는 팁

악기점을 방문해 직접 소리를 들어보고 고르는 방법을 추천한다. 먼저 가격대를 정한 다음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는 브랜드를 추천한다. 디자인은 마지막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우쿨렐레는 크기에 따라 소프라노(53cm), 콘서트(60cm), 테너(68cm), 바리톤(76cm)으로 나뉘는데, 입문용으로 콘서트 우쿨렐레가 적당하다.

우쿨렐레와 기타의 차이점

우쿨렐레는 기타에서 파생된 악기지만, 크기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기타는 여섯 줄에 몸통이 큰 반면, 우쿨렐레는 네 줄에 크기도 기타의 절반 이하로 작아 휴대에 부담이 없다. 연주할 때에도 기타는 팔 전체를 움직이지만, 우쿨렐레는 손목을 털어주듯 스냅을 이용한다.

우쿨렐레 구조와 역할



숫자로 보는 부산 생활문화연합회 현황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은 존재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문화적인 활동은 생활문화에 포함되며 이는 삶을 한층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여럿이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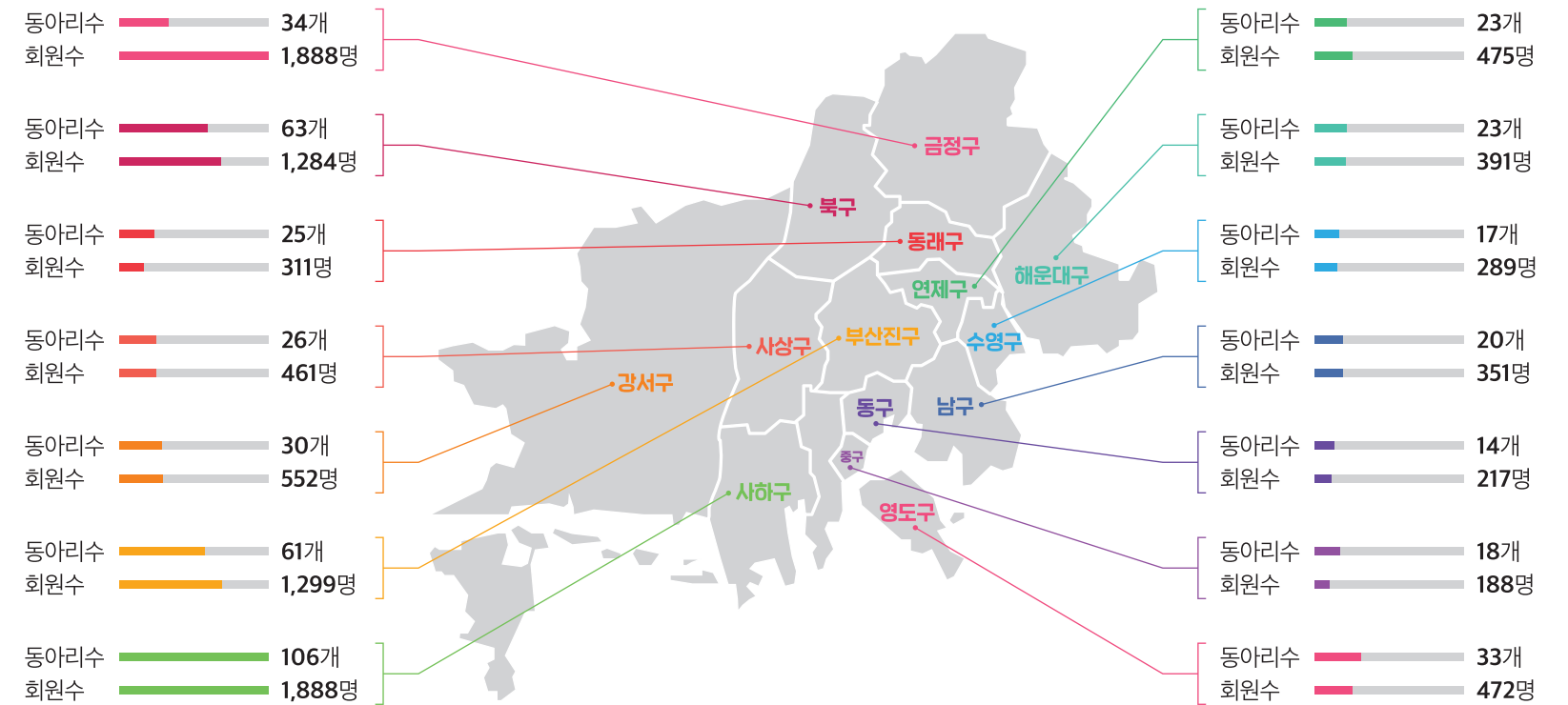
현재 부산시에는 지역과 장르별로 총 927개의 생활문화 동아리가 있으며, 15,0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크고 작은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2020년 8월 기준)

이 동아리들은 지역과 장르에 따라 생활문화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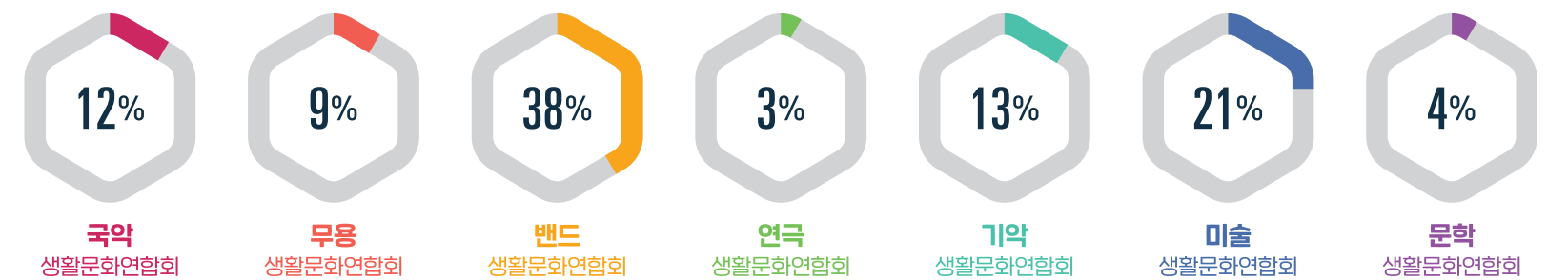
연합회는 동아리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생활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활발한 문화생활의 터전이 되고 있는 생활문화연합회의 현황을 알아보자.

지역별 동아리



장르별 동아리



두송 생활문화센터

Doosong Culture Center

두 손 맞잡고,
일상 속 문화를
풍요롭게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펑펑한 일상에 생기를 더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삶이 조금 더 신나지 않을까. 주민들에게 문턱 낮은 문화 공간과 보편적인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개관한 ‘두송생활문화센터’도 이러한 장소다.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쾌적한 공간이 돋보이는 두송생활문화센터는 지역민들의 활발한 문화·여가 활동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곳만의 범상치 않은 탄생 스토리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들여다보자.

글 정해린 사진 윤민호, 두송생활문화센터 제공

생활문화센터로 재탄생한 폐목욕탕



◦ 리모델링 전 ◦

◦ 현재 외부 전경 ◦

2015년 봄, 사하구 주민들에게 선물 같은 공간인 두송생활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다대2동 도개공 4지구에서 10여 년간 유휴시설로 방치돼 있던 폐목욕탕 건물이 리모델링을 거쳐 주민들의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던 이곳은 센터 개관 이후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거듭났다.

지난 5년간 누적 방문자 수는 71,645명(2020. 9. 15 기준)이었으며, 134회(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포함)의 프로그램이 열렸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체험이나 공연·전시·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에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센터의 공간은 지역 내 문화예술동아리들에게는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자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있다.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



◦ 다목적홀 ◦

◦ 갤러리 ◦

센터에는 기존 폐목욕탕 건물의 장점들을 살린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자리 잡았다. 보일러실이었던 지하는 66석 규모의 다목적홀과 음악실, 동아리실로 꾸며졌다. 다목적홀은 때에 따라 영화 상영장, 작품 발표회장, 강연회장이 되기도 한다. 음악실과 동아리실은 동호회원들의 연습 공간으로 인기다. 갤러리를 품은 1층 공간은 그야말로 마을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주민들은 차 한 잔과 함께 전시 중인 작품을 감상하며 일상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2층에 마련된 공작실과 강의실, 프로그램실은 동아리 활동을 비롯 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알찬 공간이다. 강연과 공예 작업 등이 가능한 동아리실과 강의실, 작품 전시와 북카페로 활용할 수 있는 갤러리는 무료로 대관이 가능하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두송생활문화센터는 ‘2019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손에 손 모아, 두송 맞잡고’ 사업으로 우수 프로그램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중 <두송모아 가드닝>과 <글쓰시네>와 같은 프로그램은 호기심을 자극하며 눈길을 끈다. <두송모아 가드닝>은 주민들이 직접 만든 화분에 각자 식물을 심어 관리까지 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센터 내 테라스를 꾸며볼 수 있는 재미난 기회가 됐다. 시나리오 제작부터 영상 촬영 및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글쓰시네>는 글쓰기와 영상물 제작이라는 흔치 않은 경험을 주민들에게 선물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결과물들은 주민 참여형 행사인 ‘두송마을 문화 축제’를 통해 전시와 공연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됐다.

현재는 모든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상태이기에 아쉬움이 앞선다. 그러나 운영 재개 이후 노래·댄스교실, 스케치·악기 수업, 어린이 과학교실, 브런치·디저트 수업 등 다양한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다.

두송 생활문화센터 가는 길



운영시간 | 10:00-19:00(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59 도개공아파트 상가동
문의 | 051-220-4626



B·LOCALLY의 1주년을 축하해주세요.

생활문화계간지 <브로컬리> 창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기 위해 브로컬리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매월 30분께 드릴 기프티콘도 준비했습니다!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브로컬리 1주년 기념 설문 Event



▲ 독자 설문조사

설문기간 | 2020. 07. 22. ~ 11. 25.

* 8월~11월 마지막 수~금 중 당첨자 개별 통보

참여방법 | QR코드를 통해 설문페이지에 접속 혹은

네이버폼 (naver.me/GT7bnZc8)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동일한 참가자의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